

가족, 개인, 집단의 정체성: 동양과 서양의 비교

히사시 히라야마, D.S.W, ACSW

(동경대 사회복지대학 학장, 테네스 주립대, 명예교수)

인류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개인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집단의 맥락 안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 다양한 사회들 사이에는 개인이나 집단 어느 곳에 강조점을 두는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얼마간 개인을 희생시키면서 집단이나 가족에 강조를 두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성향으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동양과 서양 사회의 대인관계와 집단, 가족의 삶에 있는 주요한 차이점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함의를 알아보려고 한다. 나의 논의는 나에게 친숙하고, 두 곳 모두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는 일본과 미국에 한정될 것이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대체로 서양인들은 집단의 결속보다는 개인의 권리에 더 집착한다. 따라서 자율성의 발달이나, 개인적 책임, 자아정체성, 개인적 성취와 같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들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서양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잘 수용된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인들은 집단 정체성과 결속 의식을 발달시키며 그들의 삶의 만족과 안정을 집단으로부터 얻으려 한다. 그들의 자존감이나 자아정체성은 그들이 속한 집단의 위치나 특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들의 자아 정체성은 서양인들보다 더 집단이나 가족에 밀착되어 있다. “빠어져 나온 손톱은 손질되어야 한다”는 속언이 대부분의 동아시아 사람들의 삶의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다. 개인지향적이거나 집단지향적인 양쪽 모두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장단점을 안겨주고 있다.

□ 에피소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대부분 계층적인 관계성(hierarchical relationship)이 대인관계를 지배한다. 따라서 각자의 위치와 소속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명백하게 정의되고 주문된다. 계층적인 관계에서는 일종의 공유되는 책임성의 형태가 생겨나

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희미해진다. 법률은 개인적 책무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소속된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심한 경우에 자식이 지은 중죄에 대한 사죄로 부모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것이다. 동아시아인 지닌 집단 구조 안의 계층적 관계성과 불분명한 대인간의 경계는 가족이나 씨족체계를 유지했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상급자나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그의 하위자에 대하여 책임성을 지니는 것은 이런 오래된 가족체계에서 남겨진 것으로 이것은 집단 생활의 양상으로도 변형되었다.

이에 반해 서양에서는 개인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은 부모나 자식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받아들이며 각각 자율적인 자아를 지닌 것으로 본다. 서양의 사회복지사들은 그들과 내담자와의 관계는 계약에 의한 것이며, 법률과 내담자의 개인적 취향과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계의 저변에 깔린 가치는 두 개인 상호간의 “평등”으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사회적 의무감과 인간적 감정

동서양을 가르는 또 다른 대인관계의 형태는 사회적 의무감과 인간적 감정이다. 사회적 의무감이란 다른 사람에게 진 빚 혹은 신세 같은 개념이다. 만일 한 고용인이 그의 상관이 같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잘 대해준다면, 이 고용인은 그 상관에게 신세를 진 셈이다. 따라서 그는 그 상관에게 그가 받은 것보다 몇 배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이럴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사회적 의무감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적 감정, 즉 깊은 애정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이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무감과 인간적 감정 둘 다 존재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는 인간적 감정은 사라지고 의무감만이 남을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상관과 부하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사회적 의무감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점 상호간에 애정이 깊어질 수 있다.

미국 사회는 구성원들간에 자유롭게 동의한 계약적 의무감이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아시아인들에게는 주어진 역할과 위치로 인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남들의 호의나 도움으로 인해 느끼는 의무감이 관계성에서 중요하다. 때로는 다른 개인들에 대한 의무감들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중대한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독특한 대인관계에 “아매”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엄마의 품안에 싸여있는 느낌--즉 엄마에게 의존하는 것을 치칭하는 것으로

의존성, 수동적으로 사랑 받고자하는 욕구, 따뜻한 모자 관계에 남아있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서양에서는 어린 시절에만 이러한 의존성이 허용되고, 성인기에까지 이런 관계가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런 의존적이며 응석부리는 관계가 성인기까지 연장되며, 가족 안에서만 아니라 가족 외의 관계--선생과 학생, 혹은 상관과 부하의 관계에서까지도 허용되고 존재한다.

□ 내부와 외부

일본인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원형으로 다른 관계를 제는 잣대로 사용된다. 두 사람간의 어떠한 관계라도 이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간에 느끼는 정을 느끼는 것처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낯선 이는 그 사람 자신과 아무런 연결도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용인과 그의 회사 사장과의 관계는 물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큼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는 낯선 관계가 아니라 한가족과 같은 관계로 간주된다. 일본에 있는 모든 조직이나 집단들은 멤버들 간의 결함이나 집단 정체성을 고양시키려한다. 일단 한 사람이 그 집단에 들어오면 그는 “내부 서클”의 멤버가 되며, 그의 정체성을 그 집단과 일치시키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내부인과 외부인의 구별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 집단, 가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가장 중요한 장점은, 어떤 사람이 집단이나 가족에게 충실하고 그 집단이나 가족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그 집단이나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 집단에 그다지 별다른 공헌을 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멤버들이라도, 그 집단의 회원자격을 유지해갈 수 있다.

개인에 강조를 두는 미국사회에서는, 능력과 동기, 성취의욕과 경쟁의식이 강한 개인들이 존중된다. 그러나 재능이 좀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반해 집단지향적인 일본에서는 특별한 재능이 뛰어난 개인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

일본과 서양에서 대인관계와 집단의 성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일 본	서 양
1. 말하지 않은 상호신뢰는 말로 동 의된 계약보다 중요하다.	1. 언어로 표현된 계약동의가 비언어 적인 신뢰보다 중요하다.
2. 집단멤버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 라 집단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2. 사람들은 집단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성공을 추구한다.
3. 동료나 상사를 위한 사회적 의무 감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 집단멤버들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다	4. 집단 멤버들은 그들의 동료보다 더뛰어나고자 노력한다.
5. 자기가 속한 사회적 환경에서 일 어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 을 짊어진다.	5. 개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서만 책임을 진다.
6. 자신의 감정을 숨기더라도 다른 멤버를 난처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다.	6. 상황에 대한 솔직한 자기주장이 가 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른 사 람의 감정이 상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7. 집단원들의 자존감이나 특권은 그 집단의 이미지와 특권에 매우 밀접 하게 관련되어있다	6. 집단원들은 집단을 그들 자신의 목적과 성취를 인식하는 배경으로 사 용한다

□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합의

일본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실천은 가족이나 집단이 아니라 개별 내담자에 한정되어져 있다. 그 이유는 첫 째 실제적인 이유로 전체 가족을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도시 생활 유형과 가족들이 먼 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가족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되어있다. 일본인들은 사회복지실천과 같은 전문적 도움은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전문가로써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받는다. 특히 내담자들은 폐쇄적이며 극도로 망설이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처음 단계의 과정은 매우 느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인 원조 유형이다. 미국의 사회복지사는 상호성의 원칙에 의한 관계를 형성하여 각자의 역할과 기대가 비교적 명확하며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접촉한다.

일본에서 가족이나 집단에서 각 구성원의 역할은 비교적 명확히 정의되고 있으므로 그들은 기대되는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첫 시작단계에서 가족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는 것이 무척 어렵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털어

놓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가족의 비밀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배신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사회복지사가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으로 되면 가족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수용되어 가족동맹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그에 따른 권력, 권위와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각 문화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과, 서로 대우하고, 집단과 가족 안에서 행동하는 각각의 다른 양식들을 인정해야한다. 따라서 대인간의 관계성의 유형과 대인간의 원조 형태가 각 문화마다 다른 것에 민감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들은 각 문화나 종족에 적절한 실천 증거들을 발달시켜야만 한다. 다른 문화 안에 있는 대인간의 혹은 가족/집단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해석적 견해를 지녀야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상호 존중적인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나, 간접적 의사소통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일본, 미국은 모두 고도로 발달된 후기산업사회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공통적인 사회, 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기술정보의 교환에 비하면 사회복지 영역의 지식과 정보의 교환은 희박한 편이다. 또한 지식의 흐름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이나 일본으로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는 세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세계화의 관점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